

한국 대학건축교육의 출발과 전개

柳典希

(경북대, 울산대 건축학과 강사)

1. 序論

한국의 대학에서 건축교육이 행해지기 시작한 지도 해방 이후 거의 반세기가 경과하고 있다. 그동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건축은 여러 분야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그러한 건축의 이념적 바탕이 되는 건축의 교육, 도덕성, 철학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발전과 변화에 비해 등한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학제화된 건축교육의 출발이 전문적 학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 분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도구적 기술과 기능 위주의 실업교육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상당히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 이후 정리되거나 청산될 여유조차 못 가진 채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복잡다단한 시대상황 속에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 안에서 대학의 건축교육 역시 비주체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속되어 왔다고 보인다. 이에 종합적인 안목의 건축가를 양성한다는 교육적 목표보다 긴급한 사회적 요구에 맞는 기술 위주의 건축관련 일을 하는 건설 인력을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건축 교육부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70년대 이후 각 분야의 실무가, 교육자들이 주로 건축학회의 건축지, 건축사지 등을 통해 심포지움, 특집, 교수 세미나 등의 형태로 다각적인 연구 결과와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연구들이 많은 경우, 그때마다 건축교육계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나열이나, 세분화된 건축교육의 실태 파악이나 현상 진단, 이에 대한 단속적이며 대중적인 처방의 제시 등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 결과, 우리 건축교육의 구조적 특성에 관계되는 기본적 틀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에서 건축교육의 틀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그 출발점인 해방 후 미군정기부터 교육의 틀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제 2공화국까지의 기간동안 미군정기, 건국기, 전시기, 전후회복기의 4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각 단계별로 시대상황 속에서 건축교육을 문교정책 등의 관련된 제조건과 연관지워 봄으로써 건축 내부적인 요구에 의해서보다 외부적인

〈표 2.1〉 한국교육위원회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

	직책	교육정도	종교	정치단체	출신
김성달	초등교육	한국 사범학교	-	-	서울
현상운	중등교육	일 와세다 대학	기독교	한민당	평북
유억겸	전문교육	일 와세다대학	기독교	한민당	서울
백낙준	교육전반	미 예일대학	기독교	한민당	평북
김활란	여성교육	미 콜롬비아대학	기독교	독립촉성 부인회	경기
김성수	고등교육	일 와세다대학	-	한민당	전북
최규동	일반교육	한국 상고졸	-	-	경북
윤일선	의학교육	일 경도대	기독교	-	충남
조백현	농업교육	일 구주대	-	-	서울
정인보	학계대표	한학	-	-	서울
백남훈	고등교육	일 와세다대학	기독교	한민당	

자료 :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하, PP. 8-9;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911, P. 204

상황에 더 조건지워져 온 우리 건축교육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초창기 대학건축교육의 내용과 현황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여지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제와 교과과정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아 당시의 문교자료 및 학적부 등과 관계인사의 면담 등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美軍政期

2-1. 미군정청 산하 고등교육정책의 전개

8.15 이후 미군정은 38도선 이남의 질서유지, 자유독립국가의 수립, 그를 위한 일본 식민지배의 잔재불식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출범하였다.¹⁾ 진주해 온 미군은 한국의 상황에 대한 지식을 거의 갖추지 못한, 통치준비가 전혀 안된 전투부대였다. 따라서 군정초기 미군정은 일본식 제도를 답습하면서 일본 총독부의 통치방식을 모방하였다고 보여진다. 미군정청에서 교육을 담당

한 학무국에서 사범, 대학, 의학, 전문교육 등은 고등교육과가 주관하였다.²⁾ 미군정당국은 한국의 교육 전반에 대한 명확한 정보나 지식을 갖지 못한 대신 한국인의 교육재건을 위한 노력을 존중하였다. 일본인이 빠져 나간 교육계는 한국인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시기의 교육에 관련된 한국인 인사 역시 한정된 범위의 지식인들이었다.³⁾

군정기 동안 행해진 교육의 개혁은 향후 한국 교육에 있어서 결정적인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군정청 학무국의 자문기관으로 한국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와 교육심의회(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가 조직, 운영되었다. 전자는 교육의 모든 부문에 걸쳐 중요문제를 심의 결정하였으며, 학교의 개교, 일본인 직원의 해고, 교육행정관의 임명 등 당면의 과제에 대응하였다.⁴⁾ 그 활동 내용은 〈표 2.1〉과 같다.

1) 「미군정청하의 조선지역에 있어서의 민정에 관한 미군 육군최고사령관에 대한 기본지령」, SWNCC 176/8 (1945. 10. 13). 何部洋, 解放後 韓國의 教育改革, 한국연구원, 1987, P. 55-56

2) 문교부, 문교통계요람, 1963, PP. 338-340, 1945년 8.15 당시, 남한에는 19개의 고등교육기관과 1,490명

의 교원, 7,819명의 학생이 재적하였다.

3) 군정기의 교육정책의 한계에 대하여, 김인희, 미군정하의 교육정책과 학생, 현대사 어떻게 볼 것인가 II, PP. 79-89 참고

4)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하, 1975, P. 9, 두 기관 명칭에 대해 논란이 많으나 오천석에 따름

〈표 2.2〉 조선교육심의회의 조직과 구성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원
1. 교육이념	안재홍	하경덕, 백낙준, 김활란, 홍정식* 정인보, 키퍼대위*(G. S. Kieffer)
2. 교육제도	유억겸*	김준연, 김원규, 이훈구, 이인기, 에레트(P. D. Enret)해군소위*, 오천석*
3. 교육행정	최규동	최두선, 현상윤, 백남훈, 그랜트대위(R. G. Grant), 이묘목, 사공환*
4. 초등교육	이극로	이호성, 이규백, 이강원, 이승재*, 정석윤*, 밀렌대위(F. M. Milan)*
5. 중등교육	조동식	고황경, 이병규, 송석하, 서원출, 이홍중*, 비스코중위(W. S. Biscoe)*
6. 직업교육	정문기	장면, 조백현, 이규재, 박창열, 이교선, 로렌스대위, 로리든 중위(F. P. Lauriden)*
7. 사범교육	장리욱	장덕수, 김애마, 신익범, 손진규, 허현, 팔리대위
8. 고등교육	백남운	유진오, 김성수, 박중홍, 조병욱, 크로프트소령(A. Crofts), 고든소위(J. Gordon)
9. 교과서	최현배	장지영*, 조진만, 조운제, 피천득, 황신덕, 월치중위(J. C. Welch)*, 김성달
10. 의학교육	심호섭	이용설, 박병래, 최상재, 고병간, 윤일선, 최동, 정구충, 유억겸*

자료: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1974, P. 12

주: 1. * 표는 문교부직원

한편, 조선교육심의회의는 구체제를 탈피하여 교육재건의 방향을 기획, 설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발의로 만들어져 한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교육이념과 제도를 구상하고 장기적인 교육재건계획을 군정청 학무부에 건의하였다.⁵⁾ 그 중에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건의내용을 살펴 보면, 6-3-3-4제의 단선형학제를 채택, 종래의 이원화된 고등교육기관을 모두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할 것을 구상하였다.⁶⁾ 4년제 신제대학의 졸업학점은 180학점이었으며 이 기준은 1954년에 160학점으로 인하 조정될 때까지 지

속되었다.⁷⁾ 또한 미군정청은 교육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의 경성대학의 각 학부 부장과 관립전문학교 교장을 임명하였다. 이들이 과도기의 교수진을 대거 구성하였는데 이 공학부는 그 연구의 성격상 시사성이 미약하므로 우선 과거에 교편을 잡던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수진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각 전문학교의 경우,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교수진 구성에 많은 고충을 겪어야 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수진의 질적 저하를 의미했다.⁸⁾ 교육심의회의의 활동내용은 다음 〈표 2.2〉와 같다.

5) 교육심의회의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어 건축관련 인사를 찾기가 힘들다. 자세한 것은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II 참조
 6) 오천석, 위의 책, PP. 27-28, 6-3-3-4제는 미국학제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일본유학한 김성수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8-4-4제를 택하지 않고 새롭게 대두되던 6-3-3-4제를 택한 것은 미국의 맹목적인 모방이 아님을 오천석은 주장한다. 또한 일제의 교육제도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따로 양성하는 복선형이었으나 신제도는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도록 일원화되었다.
 7) 서울대학교 삼십년사, P. 93에 따르면 서울대는 졸업 이수학점으로 전공학과 및 부전공학과와 전공과목을 총 180학점 이상, 학점 평균이 C(70-79점)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180학점의 취득은 과중한 부담이었으나 구미에서의 120학점보다 60학점을 더 요구한 것은 당시 도서관 및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8) 위의 책, P. 95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정기 교육주도 세력의 역할은 증대하였지만 이들의 활동이 지닌 역기능 역시 무시할 수가 없다. 교육심의회는 구성원은 대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친미적, 친일적이거나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 이들은 일제의 전체주의적 구습을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정치적 의도아래 철저하게 식민지 교육체제를 해체하려는 개혁의지가 부족하였으며 자생적인 민주주의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투철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또한 당시 유능한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은 향후 교육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계에서도 거의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정치계, 교육계의 인사가 주축이 된 교육주도 세력에서 도구적인 분야로 교육받았던 공업 기술분야의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관련여부도 현재로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해방공간에서 대학건축교육의 시작이 건축계의 주체적 의지 개입의 여지도 없이 건축과 관련 없는 인사들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미군정하의 고등교육정책은 식민지하에서의 폐쇄적, 억압적 정책과는 달리 개방적이고 자유방임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것은 ①미국 고등교육 제도와 정책을 새 고등교육의 모형으로 함, ②단선형학제의 도입, ③일본유학 길의 차단 및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④일제 식민지하에 억압받던 사학의 증흥, 특히 해방이후 농지개혁으로 인한 다수 지주들의 학교설립을 위한 토지투자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종의 대학설립붐이 조성될 수 있었다.⁹⁾ 이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널리 제공한 반면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질이 따르지 못한 문제와 고등유민의 문제 등을 유발하여 이후 고등교육정책의 부실화에 대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2.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미군정하에서 시행된 고등교육제도의 개편 가운데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실은 서울대학교의 창건이었다. 1945년 10월 16일, 미군정청 법령 No. 15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서울대학교로 변경되었다.¹⁰⁾ 문교부는 1946년 4월, 국립 서울대학교를 창설하는 안(이하 편의상 국대안이라고 씀)을 만들어 7월 13일에 공식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었던 서울대학교 일제시대에 설립된 관련 전문학교¹¹⁾를 일단 폐지하고 국립 서울대학교를 신설한다. 그 산하에 문리과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농림과대학 등을 두고 그 위에 대학원을 설치한다. 학교운영은 관선이사회를 두어 총장, 부총장을 임명, 대학을 경영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은 당시 미군정청의 문교부장관인 오천석의 제안 및 미군정청 동의로 계획된 것이었다. 이 안을 만든 배경은 일제가 빠져나간 뒤 학교행정을 담당할 자치회와 군정청의 갈등을 해소하고 각 학교 간의 고립주의를 극복하여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을 유효하게 쓰고자 함이었다.¹²⁾ 이에 제 1대 총장으로 미국인 앤스테드(H. B. Ansted)가 임명되었다. 1946년 8월 22일 법령 제 102호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9개 대학, 1개 대학원으로 구성된 국립 서울대학교가 창건되었다.¹³⁾

문교부의 국대안에 대해서 격렬한 반대가 제기

-
- 10) USAMGIK, Official Gazette, Vol. 1, 원주문화사
- 11)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고등학교, 경성상업고등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 12) 오천석, 1975, 하, PP. 40-41, 문교 40년사, PP. 74-75
- 13) USAGIK, Official Gazette, Vol. 1 Ordonnance, P. 383

9) 한국교육십년사, P. 94

되었다. 예를 들면, 각기 다른 기원과 설립목적
을 지닌 경성고공, 서울대학 이공학부, 경성광전
등에서 모두 반대사를 표하였다. 국대안에 대
한 반대는 학내의 교수, 학생들은 물론 대학 외부
까지 전국으로 확대되어 중 고등학교까지 동맹휴
학을 한 학교가 57개교에 이르고 참가 인원이 연
사만명에 이르렀다.¹⁴⁾ 그 반대의 명분은 민족의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정하
에서 진행된다는 사실, 각 학교가 축소내지 폐지
되며, 질적 향상과 양적 증대를 한꺼번에 꾀할
수 없으며 운영의 주체가 문교부이어서 교수의 자
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제기되었
다. 또한 국대안의 숨은 의도가 이미 학내에 상
당한 세력을 넓혀가던 좌익세력 교수를 제거하려
는 수단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좌익세력이 개입되
면서 그 양상이 복잡해지고 수많은 학생이 퇴교
처분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그리하여 「현재 서
울대학교 429명의 교수 중 380여명의 교수, 강사
진이 학교를 떠나서 강사진은 140명에 불과하다」
는 당시 기록이 있다.¹⁵⁾ 1947년 2월, 드디어 반
대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사회를 구성을 한국인
만으로 할 것과 퇴교처분된 학생의 복교가 약속되
어 국대안 반대도 철회되는 방향으로 수습되기 시
작하였다. 결국 한국인의 이사회가 출현하고 한
국인 총장으로 이춘호가 선출되었으며 국대안 반
대에 참여했던 3천여 학생들의 무조건 복교도 이
루어져 약 1년간의 혼란 끝에 국대안 반대운동은
수습되었다.¹⁶⁾

국대안 파동이 그렇게 격렬하게 일어난 이면에는
일제시기에 설립된 학교들의 통폐합을 통해 창
건된 서울대학교가 식민지 잔재를 극복하고자 하
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체질적 한계로 말미암
아 민족의 주체성, 민족문화의 개발에 대해 선도
적인 위치에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어려
움이 뒤따랐고 교수진내의 갈등도 피하기 어려웠

던 점등을 들수 있다. 특히 이공학계의 경우 일
본의 교수진과 기술자가 철수함에 따라 그 분야의
인력이 거의 공백에 가까웠다.¹⁷⁾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은 향후 우리나라 교
육계 전반에 끼친 영향력 등으로 보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¹⁸⁾ 이에서 만들어진 단과대학의
편제에 따라 학문의 갈래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
며, 이후 설립되는 대학들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
다. 미군정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이외에도 수많
은 대학이 개편, 발족하였다.¹⁹⁾

2.3. 국대안을 통한 대학건축교육의 출발

위에서 살펴 본 맥락에서 건축공학²⁰⁾의 경우
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당시 국대
안에서 건축과를 건축대학으로 할 것인가 공과대
학에 설치할 것인가 논란을 거쳤다고 기록되어 있
다.²¹⁾ 이러한 논란을 거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첫 건축교육의 시작이 완전한 타
율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건축계의 평가에 의
해 일본식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
논의는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형걸 교수에 따르면 국대안이 발표되고서야 건
축계에서도 알게 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인사는 없
는 것으로 회고하였다.²²⁾ 국대안 자체는 미국식

14)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8, PP. 277-281.

15) 위의 책, 1948, P. 280

16) 문교 40년사, PP. 74-75,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86, PP. 9-19

17) 조선연감 1948, P. 280, 서울대학교 40년사 1986,
P. 38

18)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II, PP. 87-89, PP.
145-147 등을 참고

19) 1946년에 보성전문→고려대학교, 이화여전→이화여자
대학교, 연희전문→연희대학교와 같이 종합대학교 체
제로 발족되며, 1948년 정부수립 당시 고등교육기관
수 42개(종합대학교 4교, 단과대학 23교-국립 3교,
공립 4교, 사립16교-, 초급대학 4교, 각종 학교 11교
있음. 조선연감, PP. 300-301, 문교부, 문교월보
제41호(특집호), 1958년 9월, P. 70

20) 현행 명칭 건축학과로 바뀌는 것은 1975년부터이다.

2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 건축학과편, 1987, p. 87.
이 글을 집필한 이재훈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부분
이 증빙자료를 토대로 기술한 것이 아님을 확인함.
1992. 12.

22) 김형걸 교수와 면담, 1992. 12. 2. 11시경, 서울대학
교 건축학과

의 6-3-3-4기간의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몇몇 교육행정가들에 의해 발의, 진행된 것이다. 국내안에 대한 주된 반대 이유는 교수들과 상의없이 교육 행정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결정된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한 교육자의 자치를 무시하고 교육행정이 좌우할 수 없으며 맹목적인 미국의 모방은 안된다²³⁾는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분야에서 국내안의 결정과정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일 건축분야의 인사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국내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4년제 공과대학의 건축학과 체제(College or School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System)²⁴⁾를 채택하였다는 것을 당시의 커리큘럼과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종합대학(University)내의 단과대학(College) 체제는 미국의 방식이다. 일본의 학제가 2차대전 이후 어느 정도 미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대학(University)내의 部(Faculty, 예를 들면 공학부, 이공학부 혹은 예술학부)²⁵⁾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 건축교육의 시작이 일본의 학제를 본딴 것이라고 통상적으로 인식되어 온 사고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⁶⁾ 국립서울대학교에서 공과대학 내에 건축공학과가 설치

된 것은 현재 전국 대학 건축관련 학과가 설립된 대부분의 학교가 이 편제를 택하게 되는 영향력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建國期

3-1. 建國期の 문교정책

전국초기의 교육 정책이념과 방향은 미군정하의 개방적 교육정책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까지 기본방향으로 유지되면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며 민주주의 이념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로 도입된다. 그 결과 고등교육제도의 형식과 틀은 미국식을 본따게 되었으나 아직 그 운영의 내용은 일제식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혼합식 모형에 의해 교육이 진행된다.²⁷⁾

일제 말기와 해방 당시는 고등교육의 행정인 학무국 산하 학무과의 專門學界 밑에서 조직 운영되었다. 미군정 말기에 이르러 학무국이 문교부로 승격, 개편되면서 고등교육의 행정도 문교부장 산하의 高等教育局에 의해서 관장되었다.²⁸⁾ 이러한 기구의 전통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40여년 동안 계승되어 왔으며 이후 고등교육행정이 문교부의 직접적 통제와 감독하에 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²⁹⁾ 건축교육의 경우도 그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大學教育課에서 공학의 한 분야로 지원, 육성, 통제받게 되면서 그 외형적인 틀 뿐만 아니라 그 내실까지도 지배받게 된다. 또한 1949년 말에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학제, 지방자치제, 지방교육재정조세 등 교육의 근간이 되는 제도의 틀을 명시하였으며, 이 원칙은 이후 우리나라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원리가 되었다. 또한 1951년 6-3-3-4제 기간학제가

23) 독립신문 1946. 7월 28일자 '대학은 어디로'라는 좌담회, 문교 40년사 P. 75 재인용

24) 출고, 근대 건축교육학제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3, PP. 91-94, PP. 225-231.

25) 日本 建築學會, 大學 名簿, 1992年版 참고할 것.

26) 우리나라 대학의 건축교육이 일본의 체제를 본딴 것이라는 믿음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 일일이 예를 열거하기 힘들다. 대한건축학회 40년사 P. 37에 의하면 건축교육제도를 미술대학에 통합하거나 미국처럼 건축대학으로 독립시키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건축학계에서는 일본식을 고수하여 공과대학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록 역시 시점이 불분명하다. 김우성, TM PP. 74-75, 한국근대건축개설, 고성룡, 건축교육 및 건축행사, P. 11의 경우도 별다른 이의없이 위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27) 김종철,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행정에 미친 미국문화의 영향, 아세아연구 67.6, PP. 93-106, 교육계 전반을 통해 미국의 교육사조, 이론, 방법 등이 학제, 교육자치제, 교사양성, 행정형태 등을 통해 한국교육제도와 교육행정에 끼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28) 1946. 3. 29 군정법령 제 64호, 중앙행정기구 개편 단행

29) 문교 40년사, 1988 PP. 71-73.

정립된 후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방후 5년 미만의 기간에 고등교육 기관수가 2배 이상으로, 학생수가 거의 4배로 늘어났다.³⁰⁾ 초창기의 대학들은 교수의 부족, 시설의 불비, 도서의 빈곤 등으로 교육조건의 부실을 면치 못하였으며, 교수의 강의는 당연히 주입식 필기 교수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정확한 지식을 배우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수립 전후 대학운영의 실태는 당시 문교부 대학행정 당국자의 다음 글에서 잘 나타난다.

「이때는 기존학교의 개편과 신설대학들의 연이은 창설 등, .. 우리나라 대학의 창건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특색을 살펴 본다면 교수들은 절대적인 수요부족으로 오늘은 이 대학, 내일은 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상례였으며, 몇몇 기성재단을 제외하고는 학교자체가 그 간판을 이 교사 저 교사로, 또 경영주를 이 재단에서 저 재단으로 바뀌가는 형편이었지만 당시의 학생들의 향학열은 대단한 것이었으며, 교수들의 연구의욕도 비상하였다.. 대학들이 외모는 초라했으나 내실은 정열에 가득차 있었다.」³¹⁾

3-2. 서울대학교 학제의 변화-미국의 영향

서울대학교의 경우 초창기의 학제는 미국 제도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일례로 일본의 회계제도하의 예산집행방식은 미국식 법규로 수정이 되어 재무부장이 모든 예산을 총괄하였다. 1946년 12월, 문교부 직급 규정의 개편에 따라 교직원의 직급을 일제시기의 教授, 助教授, 助手에서 教授, 準教授(副教授), 助教授, 專任講師, 강의담당 가능한 教授助務員(助教) 등으로 나누었다.³²⁾ 또한 초창기의 교원 임명권은 총장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단과대학별로 있었

다.³³⁾

초창기 교과과정에서 종전의 일본식 학년제 대신 미국식 학점제를 채택, 실시하였다. 학점제를 채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대학을 재학하는 기간동안 학교가 정한 일정한 학과만을 수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필수 과목 이외에 광범위한 학과 선택의 자유를 갖게 하여 학구활동의 향상과 교양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33학점까지를 1학년, 33-77학점 2학년, 78-123학점 3학년, 124학점 이상은 4학년으로 구성하였으며 졸업학점은 180학점(졸업논문 4-6학점 포함)이었다. 교과목은 필수, 전공,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편성되었다. 1948년, 당시 필수과목 학점을 살펴 보면 국어, 국문학 8학점이상, 외국어, 외국문학 8학점이상, 자연과학 개론, 자연과학 계통과목 4학점이상(문과), 문화사 혹은 외국어, 외국문학 4학점이상(이과), 체육 8학점이상 등이었다.

3-3.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육내용

위와 같이 학교 전체의 학사 행정의 틀이 정해지면서 그 안에서 건축공학과 교육내용도 편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건축교육의 내용은 6.25 등으로 인해 거의 자료를 구할 수 없으며 특히 서울대의 경우, 종합화에 따른 캠퍼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초관련자료인 학사편람 등이 거의 소실된 상태이다. 따라서 당시의 건축교육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학적부 열람을 통해 이 시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추적해 보는 것이 이 시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³⁴⁾

먼저 다음의 <표 3.1>에서 보면 초창기의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진의 면면은 경성고공 출신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유학파(김중업, 황의근, 김종식·이용재 등)들이 강의를 맡는 등 당시의 건축계의 인사가 많이 동원되어 건축교육을 담당한 것

30) 이 당시 설립된 대학은 신흥초급대학(현 경희대 1949), 정치대학(현 건국대 1949), 홍익대학(1948), 청구대학(현 영남대 1950), 덕성여자초급대학(현 덕성여대 1950), 동덕여대(1950), 청주초급농과대학(현 충남대 1950) 등이다.

31) 문교월보 41호

32) 서울대학교 30년사 P. 96.

33) 서울대 40년사 P. 36.

34) 서울대 학적과로부터 1947-1974년까지 졸업생 중 각 학년 1명씩의 학적부를 무작위 추출, 이름삭제한 자료를 제공받음, 1970년이후는 수업시간표가 남아있음. 1992 11. 26

을 볼 수 있다. 특히 1946년에서 6.25 발발 이전까지 3명의 교수, 7명의 전임강사가 활약하였던 사실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건축공학과와의 경우도 좌우의 간의 이념대립과 6.25 등으로 인하여 건축계획, 구조, 재료, 양식(건축사에 해당함)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담당한 교원들이 월북, 납북, 사망하는 등으로 부족한 인력이 더욱 고갈되었다. 특히 양식을 담당한 황의근의 월북, 서양건축사를 담당한 신태수와 조선건축을 담당했던 이한철이 6.25 중 사망하여 건축사의 분야가 거의 공백으로 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³⁵⁾ 전반적으로

교육 내실면에서 해방 전 혹은 해방 직후보다 교육부채로 인한 지적 공백기를 더욱 심하게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방후 교육 첫세대 역시 그 다음 시기를 이을 준비를 충분히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전후회복기가 되면서 점차 해방후 교육세대가 부족한 교원의 자리를 메꾸게 된다. 이는 전쟁전의 다양한 학적 배경의 교원구성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향후 경성고공과 서울대 출신의 교원만으로 충원되어 교육이 진행되는 계기가 된다고 보여진다.

〈표 3.1〉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성립기의 교수진

성명	출신학교	직위	재직기간	주요 담당 과목	비고(現)
李均相	경성고공 3	교수	1946. 10. 22-69. 2. 28	건축구조 & 재료학	사망
金亨杰	東京工大	교수	1946. 10. 22-79. 3. 30	구조역학	명예교수
宋旼求	경성고공19	전임	1946. 10. 22-47. 2. 28	의장, 디자인 ¹	사무소
姜祥仟	경성고공20	전임	1947. 3. 1-50. 7. 31	건축구조 ²	월북
廉昌鉉	橫濱高工3	전임	1947. 9. 1-50. 7. 31	건축계획 ⁴	월북
申悅秀	경성고공18	전임	1947. 9. 16-50. 7. 31	서양건축사 ⁵	사망
金冕植	경성고공19	전임	-50. 7. 31	건축재료	월북
金重業	橫濱高工	조교수	1948. 2. 21-53. 5. 31	건축디자인	사망
黃義根 ¹	京都帝大	전임	1948. 9. 1-50. 7. 31	양식	월북
金鍾植	早稻田大	전임	1948. 10. 1-53. 3. 1	건축계획 ⁶	
金允基	早稻田大	시간	1946. 10. 1-56. 8. 25	계획학	
俞元濬	경성고공 9	시간	1946. 10. 22-47. 2. 28	건축재료학	
李漢哲	경성고공13	시간	1946. 11. 15-54. 5. 31	조선건축	사망
李龍在	東京工大	시간	1947. 3. -56. 8. 25	건축학	
愼武賊	경성고공16	시간	1947. 9. 1-56. 4. 1	시공법 & 구조	사망
金浩龍		시간	1949. 4. 1-52. 8. 25	자재화 ⁷	
金忠國 ⁸		시간	1950. 2. 21-52. 8. 25	도시계획	6.25病死
宋禹憲		시간	1948. 9. 16-49. 9. 30	제도 & 설계	⁹
馬東城		시간	1949. 4. 1-57. 3. 31	제도	¹⁰

자료 : 서울대학교 삼십년사, 1976, 공과대학 전직 교수명단, PP. 793-79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 PP. 86-88,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동창회명부 1991. 2, 개인약력, 인터뷰 등의 자료로 구성함³⁶⁾

35) 그리하여 서양건축사 분야는 정인국(1954. 4-1954. 10)과 박학재(1955. 4.-1956. 8)가 건축사라는 명칭으로 강의를 하다가(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 P. 86, 표 2.1) 김희춘이 담당하게 되나 한국건축사는 1971년이 되어서야 윤장섭에 의해 독립과목으로 개설된다. 서울대학교 수업시간표 참조

36) 김옥성, TM, 1991, PP. 74-75, 박인준(?-1944, 연희전문학교 건축담당교수로 역임)에 대해 이 시기(1953)에 서울대 강사를 역임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박인준의 경력에 없음. 김재철(경성고공14)이 1945에 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그의 경력은 1955년 2학기 서울대 역학 강의, 1959년 2학기 연세대

〈표 3.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1946년도 교과 과정

과목명(교양)	학년	학점수
체조	1-4	8
국어	1	8
영어	1, 2	5
수학	1, 2	11
물리	1, 2	9
화학	1, 2	4
독어	1, 2	8
문화사	1	4
자연과학 개론	1	4

합계 : 186학점(교양 62, 전공 124)
 46년 9월 1일 입학-1950년 5월 12일
 졸업한 학생의 학적부 참조

과목명(전공)	학년	학점수
건축 구조	1, 2	4
제도 실험실습	1-4	54
철근 콘크리트	2-4	10
응용 역학	2, 3	8
건축 계획	2, 3	6
철골 구조	3, 4	8
시공	3, 4	10
의장	3, 4	6
양식	3	4
측량	4	6
도시 계획	4	4
구조 역학	4	4

이 기간동안 서울대 건축공학과에서 시행된 교육내용을 살펴 보면, 1947년 1회 졸업한 학생은 1명으로 졸업논문으로 학점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1948년의 제 2회 졸업생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성적이 소실되었으므로 기재할 수 없음'으로 처리되어 그 교육내용은 알 수 없다. 1949년의 3회 졸업생은 없었다. 1950년 제 4회 졸업생 8명(교직진출, 尹張燮: 서울대, 金根德: 연세대)이며 그 교과 내용은 위의 〈표 3.2〉와 같다. 이 해의 기록이 해방 이후 건축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가장 원형대로 보여준다. 그것은 1946년부터 1학년을 시작하여 1949년까지 교육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다음 해부터는 6.25 사변으로 인하여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것을 찾아 낼 수가 있다.

제 5회 졸업생의 경우 5명(교직 진출 李光魯: 서울대, 李建永: 인하대학교, 朴鳳成: 고려대학교)이 남아 있는데 그 교육 내용을 보면, 1947, 1948년은 기록이 소실되어 48학점씩으로 인정되

고 1949년은 그전 해와 유사한 3학년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50년의 강의명은 금속재료, 방직학, 지질, 응용화학, 무기화학, 미분방정식, 복소함수론, 기계공학, 화학공업개론, 합동강의 16학점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전쟁 발발과 더불어 서울에서 열린 전시대학에서 여러 과목을 이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시기(1950-53)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정상적인 공부를 거의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5-6년, 심지어 7-8년 만에 졸업하기도 하였다.

특히 〈표 3.2〉의 과목명들을 통해 볼 때 일제 시기의 경성고공의 교과과정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이 교양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1-2학년 과정의 대부분이 인문과학, 자연과학, 국어, 체육 등을 위한 시간으로 할당되어 있다. 교양과목이 전체 180 졸업이수학점 중의 1/3에 해당하는 62학점이나 차지하는 것은 직업교육을 본령으로 하는 일본이 아닌 미국의 교양교육과정을 채택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비로소 직업, 기술 위주의 왜곡된 건축교육이 행해졌던 경성고공과 서울대학교가 그 교육적 외형에서는 상관성을 찾기가 힘들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전공과 관련하여 볼 때 경성고공의 교육내용에서 과목명은 약간씩 다를지라도 구조, 시공, 계획, 의장, 제도 등의 중심과목은 유사하며 도시계획만이 새

재료역학, 시간강의 담당하였고, 이 시기(1945)에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김육성의 기록은 오류임. 1, 2, 4~7은 이광노 교수 대담으로 확인, 1992, 12. 23. 8김충국의 경력은 김중업, 건축가로서의 회상과 전망, 김정동 대담, 꾸밈 1981 5/6 P. 66. 참조 9, 10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 참고, 이광노에 의하면 목공으로 추정함.

롭게 개설된 것을 볼 수 있다.³⁷⁾ 또한 구조, 시공관련과목의 비중이 44학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실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해방 후 유능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현실에서 일제시대 동안 교육받고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세대들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할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였던 동시에 건축계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극복하려던 움직임이 결실을 맺지 못한 사실이 그 시대가 지녔던 한계였다고 할 것이다.

3-4. 한양공과대학의 건축교육

해방 이후 6. 25이전까지 건축교육을 담당한 학교는 서울대학교 이외에 漢陽工科大学 건축공과과가 있다. 이는 1939년 7월, 金世俊에 의해 창설된 東亞工科學院에서 시작되었으나 일제의 私學탄압으로 1944년, 폐쇄당하였다. 1942년경, 동아고등공과학원이 설립되어 야간과정에서 건축을 가르쳤다. 해방후 잠시 建國技術學校로 개칭되었다가 1948년, 현재 한양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한양공과대학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는 전문부로부터 출발하여 1948년 1기생 30명, 다음 회 2기생 50명을 배출하고 4년제과정으로 바뀌었다.³⁸⁾ 두 학교의 건축공학과 창설에 같이 관여하여 전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김형걸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³⁹⁾ 한양대를 시작할 때 서울대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박학재 교수가 주로 강의를 담당하였고 서울대의 교수들이 출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948년 당시의 교수진을 살펴보면⁴⁰⁾ 박학재(關西高工: 의장, 설계), 김형걸(東京工大: 역학), 성낙천(日本高工: 설계), 김창집(福井高工: 역학), 선병택(早稻田大: 철관설계), 김중업(橫濱高工: 계

획) 손중모(關西高工)와 같은 일본 유학과를 중심으로 교수진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1957년, 본교 졸업생인 이해성이 임용된 후 자체 출신 교원과 일본 유학과를 위주로 교원이 구성된 지금까지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여겨진다. 서울대, 한양공대 두 대학의 건축공학과는 그 무렵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건축계의 인재공급원을 이루고 있었다. 두 학교의 특성이 유사하게 공과대학내에 편입되어 형성되면서 후일에 신생 각 대학 건축과의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진다.

4. 戰時期

4-1. 戰時聯合大學의 創設

1950년 6. 25동란 발발 이후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던 대부분의 대학은 문을 닫아야 했다. 9. 28 수복 이후 다시 개교를 서두르던 차에 중공군의 침공으로 1951년의 1. 4 후퇴를 하면서 다시 적군의 점령하에 놓였다. 문교부는 1951년 1월 7일 부산 시청에 사무처를 두고 2월 26일자로 戰時下 教育特別措置綱領을 시달하여 피난지에서 교육활동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곧 이어 1951년 5월 4일 大學教育에 관한 戰時特別措置令(문교부령 제 19호)을 공포하고 戰時聯合大學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것은 흩어진 교수와 학생들을 모아 피난지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연합식 고등교육기관으로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지에 설치되었으며 대학의 협의하에 운영위원과 학장을 선출하여 그 운영을 담당케 하고 소요경비는 관계대학이 공동부담하였다. 교원은 참가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출강하며 학생이 연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⁴¹⁾

전시연합대학의 교과과정은 전란전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쳤다. 대학(각 지역의 전시연합대학)에 따라서는 각 과별 전공과목이 제

37) 즐고, 1993, PP. 201-204, 경성고공,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과과정 변화표 참조

38)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50년지 제 3부, 한양학원 50년사 제 1권, 1989. 5

39) 한양대 토목, 건축학과 초대 학과장 역임, 서울 수복 후 그만 둔.

40) 한양학원 50년사 I. PP. 108-109

41)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PP. 228-229.

대로 개설되지 못하여 부득이 재학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타과목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시특별조치령」 제12조에서 1950년도에 한하여 매 과목 매 주 1시간씩(실험, 실습, 실기는 2시간씩) 12주 이상 수업을 받은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학년 단일제로 편성된 대학에서는 1950년도에 한하여 1년간 수업시간수를 720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만일 이 시간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연도까지 부족시간을 보충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과과정은 충분히 정비될 틈이 없었다. 따라서 서울대의 경우를 보면 초창기에 쓰이던 규정에 「전시특별조치령」 등의 조문을 가미하여, 이에 의하여 교육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총 180학점을 이수하는 외에 군사학점 3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였다. 당시 교과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크게 나뉘고, 필수과목은 다시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되었다. 일반교양과목은 필수과목 과정의 1/3이내로 규정되었고, 전공과목은 다시 주전공과 부전공과목으로 세분되었다.

4-2. 전시연합대학의 건축교육

서울대학교의 경우, 부산으로 피난 온 공과대학은 西大新洞의 가교사에서 교직원 55명(교수 14, 부교수 8, 조교수 11, 전임강사 18, 교수조무원 4)과 학생 1,138명이 수업을 했다. 피난지의 가교사는 학생들의 연구와 공부를 지원해 주기에 너무 부족하여 부산 시내의 16개 공장과 기타 연합대학이 설립된 각도의 39개 공장 실험실이 이용되었다.⁴²⁾ 전란으로 인하여 많은 인적 손실이 있었으며, 시설이라고는 겨우 강의할 수 있는 미군 천막 2동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다. 건축과의 교원으로는 이균상, 김중업 등이 활동하였다. 당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나 상기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적부를 통해 전시 전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례로, 1951년 4학년 학생의 이수 교과목의 목록을 보자. (괄호 안은 학점 수)

일반전기, 일반야금, 공장건축(2), 구조역학(2), 건축시공법(4), 철근콘크리트(2), 건축계획(2), 건축구조(4), 의장(4), 건축사(2), 도시계획(4), 건축위생공학(4), 영작(2), 선박산법, 측량(2), 설계(12), 철골구조(2), 군사학(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건축계획, 건축구조, 의장은 해당학생이 2학년에서 이수한 과목이며,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 건축계획, 건축사, 도시계획, 건축위생공학 등은 3학년에서 이수한 과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당시의 상황에 의해 해당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이 많은 경우, 같은 수업을 반복하여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⁴³⁾ 따라서 교원의 수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과과정대로의 운영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와중에서도 설계학점은 12학점이나 된다. 특히 군사교육학점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임시조치로 재학 중 반드시 8학점을 취득토록 하였다. 전시연합대학은 피난살이의 고난 속에서도 교육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응을 시도하였던 점이 특기할 만하며 약 1년간 계속되다가 1952년 5월 말에 폐지되었다.

4-3. 지방국립대학의 발족

전시연합대학의 설치 운영은 종전에 서울에 집중되었던 고등교육을 일시적으로나마 지방에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 전세가 안정되고 이미 수복된 서울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각 대학들은 원소재지로 복귀하여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전시연합대학의 소재지를 비롯하여 각 지방에서는 대학생들의 서울 유학에 불안을 느끼는 면이 있는데다가 모처럼 마련된 대학의 지방분산을 계기로 삼아 문화의 중심지로서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기운이 일어났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1952년 10월,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이, 1953년에는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가, 1955년 2월에는 제주대학이 창설되었다. 이들 지방국립대학이 발족되면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

42) 서울대학교 40년사, P. 49

43) 김형걸교수의 회고

〈표 4.1〉 전국 건축관련학과 현황 (1956년 현재)

학교명	소속	학과명	설치연도	정원	소재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1946. 7	160명	서울
한양공과대학		건축공학과	1949. 3	200명	서울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1952. 3	160명	광주
청구대학		건축공학과	1952	160명	대구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1952. 10	160명	대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1953.	160명	광주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토건공학과	1953. 4	160명	부산
홍익대학	미술학부	건축미술과	1954. 3	60명	서울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1955	80명	부산
합계		8개학과		1220명	=

대한민국 건국10년지 간행회, 대한민국 건국10년지, 경향신문사, 4289년 PP. 827-833

기적으로 확대되고 균등화되는 데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에 집중되었던 문화기능을 분산시키고 지방문화의 발달을 위한 새 계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부실한 조건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 계기를 조성한 셈이었다. 8.15 이후의 대학복속에서 설립된 수많은 사립대학들이 그러하였듯이 이제는 국립대학도 사전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한꺼번에 발족되었으며 미비된 조건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교수, 시설 등을 비롯하여 모두가 부실하였고 대학다운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는 요원하였으며 어느 의미에서는 교수, 시설 등 조건이 우수한 고등학교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발족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방 국립대학들이었다.⁴⁴⁾ 또한 사립학교들도 그 규모를 크게 하여 종합대학교로 승격되는 예가 많았다.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을 아울러 살필 때에 이러한 대학의 양적 증가는 상대적으로 그 질적 저하만을 의미할 뿐이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활동은 극히 부진한 형편이었다. 교수는 생활보장이 안되어 동분서주하면서 호구지책에 급급하는가 하면,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었다. 즉 대학의 질서는 전화로 마비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시하와 휴전 직후인 1952-1954년 동안 새로운 대학복이 조성된 원인을 오천석은 다음과 같은 8가지로 설명하였다.⁴⁵⁾

①대학문호의 개방 ②해방과 더불어 항학열의 고조 ③외국유학의 길이 차단됨으로써 국내대학의 증설을 요청 ④토지개혁(1949)의 영향으로 대지주들의 토지기부 성행 ⑤대학설립설치기준의 완화로 운영자원(주로 농토)과 건물로만 설립인가 ⑥대학생에게 징집보류의 특혜 부여 ⑦대학의 기업화로 인한 학생의 등록금 운영(?) ⑧실업자들에게 유예의 기간을 제공한 점 등.

4-4. 건축교육의 확대

지방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대거 설립되면서 이를 계기로 건축교육의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건축의 저변확대와 지방건축인력의 양성이란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었으나 양적 확대가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당시 건축관련학과는 위 〈표 4.1〉과 같다.⁴⁶⁾

45) 오천석, "대학교육의 위기", 민주교육을 지향하여, 을유문화사, 1960, PP. 284-287

46) 1961년까지 1958년 연세대학교 건설공학과, 1960년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가 발족되어 11개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게 된다.

44)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PP. 201-203

위의 건축관련 학과들이 모두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미술대학에 속한 홍익대학의 경우는 주목할 만하다. 수복이 되자 김환기, 윤효중 등 화가, 조각가가 중심이 된 홍익대학 미술학부가 종로 장안빌딩 뒤 창고에서 만들어진다. 이후 홍대 건축미술과가 윤효중, 강명구, 엄덕문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다. 건축미술과로의 명칭을 정한 것은 홍익대학에 당시 공학부가 없고 미술학부만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후 1954년 한미재단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I. M. Pei의 설계사무소로 가게 된 강명구대신 월남해 있던 와세다대학부 건축과 출신인 정인국이 엄덕문과 홍대에서 가르치게 된다. 강명구의 회고를 통해 보면, 미국의 대학들을 둘러보던중 일본식 건축교육과 미국건축 교육방식의 차이를 접했을 때의 충격을 읽을 수 있으며 그 경험이 교육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⁷⁾

「미국에 가서 하바드, I. I. T 등을 둘러보고 미국학생들 공부하는 방식을 보았지요. 일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다르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여 홍대에서 .. 모형을 만들고 도면그리는 기법도 처음 도입한 것이지요. 미국의 대학을 보니까 공과대학에 속해 있는 데도 있고 예술대학에 속해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인지 건축대학을 만든 곳도 있었어요. 우리는 교육기간이 대개 4년이었는데 그것은 5-6년이예요. 건축이란 것이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지요.」

그러나 건축미술학과는 미술학사로 배출되는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와 공학계에 편중된 문교부의 지원정책 등의 문제 때문에 공대로 소속이 바뀌게 되지만 설계와 미술 중시의 교육 방침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특색이라 할 수 있다.

5. 戰後回復期

5-1. 전후의 복구와 재건

1953년 휴전 이후 1960년 4. 19. 학생혁명에 이

47) 건축가, 83. 1-2. 원로와의 대화, 강명구편/대담 김정동, PP. 3-8

르는 6년 8개월의 기간은 6. 25동란의 전화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국민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재건을 기도한 시기였다. 문교부의 여러가지 보고들은 대학시설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어 있지 않다.⁴⁸⁾ 특히 교육의 측면에서는 건국이후 자주적 교육건설을 시작하자마자 6. 25동란의 발발로 정책수행을 저지당했던 만큼 제도를 재정비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교육의 기초를 정립하는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만 했다. 정치, 경제 등의 사회환경이 안정되지 못했고 환경조건은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의 교육열은 여전히 상당히 높았으며 정부의 개방적 교육정책도 유지되었다.

1952년도에는 유엔 한국재건단(UNKRA) 교육원조비 7, 233, 633달러가 우리나라에 배정되어 각 대학은 교실신축, 교실형선, 도서구입, 실험기재구입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동년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은 1백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여 현대적 시설이 완비된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피난처병원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시설을 갖추게 하였다. 한편 문교부는 1952년도 초에 각 학교의 부족한 교사를 증축, 신축하는 사업을 급속히 추진하여 우선 1952년 3월까지 100개소의 교실을 완성하였다. 미 8군의 주선으로 CAC를 통하여 가교사 1, 000교실의 건축자재(목재, 시멘트, 양정, 유리 등)를 원조받아 이 가교사들이 마련됨으로써 전시연합대학은 해체되고 각 대학은 독자적으로 수업이 가능해졌다. 1953년 8월, 서울로 환도한 정부는 재건에 착수하였으나 모든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엄청났으며 당시의 국가재정형편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기대하게 된 것이 외국의 원조였다.

48) 문교월보 특집호, 1958, P. 107에서는 2, 736교실 중 전과 562교실 반과 1, 057교실로, 문교개관 1958, PP. 97-98은 보통교실 2, 495교실 중 776교실이 전과, 실험실습실 등 많은 특수교실 파괴로 모든 시설을 합치면 대학의 시설피해는 2, 346교실로 보고하고 있어 아뭏든 대학시설의 약 60%정도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2. 미네소타 프로젝트

전후 복구와 재건에는 다양한 외국기관의 원조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의 교육재건에 참여했던 외국원조기관은 유엔민사처(CAC), 유엔한국재건단(UNKRA), 경제협조처(USOM), 대한군사원조단(AFAK), 국제개발처(AID), 국제협조처(ICA), 미국원조물자발송협회(CARE), 한미재단(AFK), 한미장학위원회(FSC), 아시아재단(AF) 등이 있었다.⁴⁹⁾ 전쟁으로 인해 서울대학이 입은 피해만 복구하기 위해서도 12억환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53년도 국가예산의 약 1할에 달하는 것이었다. 서울대학의 시설복구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얻는데 실패한 최규남 총장은 미국 원조당국의 승락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김법린 문교부장관은 서울대학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최총장은 원조액을 균형 분배하는 방법보다 집중투자하는 방법이 더욱 낫다고 주장하여 마침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1954-59년에 걸쳐 미국 해외원조기구인 국제협조처(ICA)가 서울대학교에 대한 기술 원조와 시설복구 등의 명목으로 도합 232만 5천 달러에 해당되는 원조를 하였다. 일차적으로 30만 달러를 받기로 한 서울대학에서는 이 원조를 바탕으로 하여 대규모의 서울대학교 재건계획서를 작성하여 문교부를 경유, 미국 원조기관에 제출하였다. 미국해외개발본부(FOA)에서는 이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서울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1953년 당시 한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로 선정된 농학, 공학,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서울대학교 원조계약을 체결하였다.

FOA 원조계획의 실행을 담당할 것은 미네소타 대학교였다. 미네소타대가 선정된 이유는 농, 공, 의학 분야가 모두 있는 학교를 FOA에서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접촉하여, 미네소타대와 오하이오 주립대만 남게된 결과였다. 두 학교 중에서 미네소타로 결정된 배경에는 오하이오대에는 조선공학과의 없었고 미네소타에 있었기 때문

이었다. 또한 FOA(ICA의 전신)의 책임자였던 미네소타대 출신인 해롤드 스타센(Harold Stassen)-미네소타 주지사로 국가적인 명성을 지닌-이 미네소타 학교당국과 접촉한 결과였다.⁵⁰⁾ 따라서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 차원의 접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학 대 대학의 차원에서 교류가 진행된 것이다.⁵¹⁾ 미네소타대학에서는 원조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해롤드 메이시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서울 대학에 파견하였고 이 사절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1954년 9월 28일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확립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은 3년간이었고 원조액은 총 180만 달러였다. 이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농대, 공대, 의대 학장들이 각각 6개월씩 시찰 및 협의차 미네소타대학에 초청되었고, 일반교수도 1년 내지 3년간, 강사는 1년, 조교 및 대학원생은 2년간 미네소타대학에서 각기 전문분야를 연구하였다. 미네소타대학에서도 교과과정, 설비, 수업, 시험 방법, 과별 세미나 등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합동 연구하기 위해 수시로 교수들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하여 공, 의, 농대를 비롯하여 수의대, 행정대학원, 치대 등의 교수 133명이 파견되었다.

인사교류계획은 1957년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되어 1958년에도 10만 달러의 예산으

50) M. Bronfenbrenner, *Academic Encounter, The American University in Japan and Korea*, The Free Press of Glencoe, NY, Michigan State Univ. 1958, PP. 170-174. 나머지 대학들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여러 대학들과 제휴하여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선택될 수가 없었다.

51) 한국근대건축개설 KMA1-210 P. 17, 김정동의 글에서 박인준이 1930년대 미네소타대학 건축학부 재학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그의 주선으로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기술한 것은 추측에 의한 오류로 보여진다. 박인준의 경력이나 당시 관여 인사의 증언으로 통해 볼 때 이 프로젝트와 박인준씨는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9) 김종철, 1967 P. 95

로 교수 17명이 파견되었다. 인사교류에 할당된 180만 달러 이외에 시설재건을 위해 다시 350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이에 의해 의대, 농대, 공대의 건물신축 및 내부시설, 실험용 계산기 전기회 촬영기 등을 비롯한 각종 실험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졌다.⁵²⁾ 한편 미네소타 원조계획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의하여 1961년 9월 28일까지 다시 연장되면서 다른 단과대학도 포함되었으며 인사교류, 기계기구도입, 건물복구 등이 이루어졌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의 원조액을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기계기구 도입액 약 309만 달러이고 총 합계는 약 1,043만 달러였다. 이와 같이 국고재정의 부족은 대학들이 외국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특히 공과, 농과, 의과 등이 공계통에 집중적인 외국자원이 이루어져 서울대학은 농대, 의대, 공대의 시설재건과 교수진의 자질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다. 다른 단과 대학에 비하면 건축학과는 당시 여건으로 말미암아 ICA 원조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타과에 비교하면 수혜대상과 수혜액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조프로그램을 계기로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1960년대 공업화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외국원조에 대한 의존성이 크면 클수록 학문의 자주성과 과학, 기술의 자립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향후 학문의 경향이 미국 위주로 치우치게 되는 계기를 여기서 또 다시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5-3. 외국원조 프로그램과 건축교육

1. 미국무성

이균상교수는 미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지도자 교환조로 1954년 3월 17일에서 1955년 8월 30일까지 미국에서 공영주택과 도시계획에 대한 연수를 하였다.

52) 350만 달러 중 1957년도에 할당된 79만 달러는 문리대, 사대에 사용되었고, 공공행정비로 약 30만 달러가 책정되어 행정대학원 및 법대 부속도서관 신축에 사용되었다.

2. 한미재단(AFK)

강명구(54. 2-55. 3), 이광노(1954. 10-1955. 11), 이건영, 유덕호 등이 한미재단의 후원에 의해 주택부흥원조사금으로 미국의 I. M. Pei 설계 사무소에 약 1년씩 다녀오게 된다. 이들은 귀국 후 전후복구를 위한 주택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이광노의 회고에 의하면 「디자인의 프로세스 즉,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라든지 사무실 시스템 등」⁵³⁾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이 경험은 70년대 중반의 교수점직금지 이전까지 학교와 실무가 연계되어 설계사무소가 운영되면서 그의 무애설계사무소를 통한 작품활동과 교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미네소타 프로젝트(ICA)

건축공학과에서 행해진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그리 크지 않지만, 1954년 미네소타 대학의 건축과 그라폰다(Graffunder)를 고문으로 하여 교육방향과 시설개선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미네소타에 파견된 건축과 교원으로는 김희춘(1956. 8. 27-1957. 3. 8, 건축사, 설계), 김정수(1956. 8. 8-1957. 7. 19, 설계)와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1호인 윤정섭(1956. 8. 27-1957. 8. 7, 도시계획, 설계) 등이 선발되었다. 소수였지만 이들이 가서 공부한 분위기를 당시 미네소타 대학의 사정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⁴⁾

1954년 미네소타대학의 건축학교에는 MIT로부터 유능한 교수인 램슨(Ralph Rapson)이 초빙되었다. 마흔의 나이에 램슨은 이미 건축설계와 실무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었다.⁵⁵⁾ 당시는

53) 무애 이광노교수 건축작품집, 1987, P. 15

54) 본 연구자가 장기윤의 도움으로 미네소타대학의 학적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분들이 학위를 마치지 않은 관계로 자료가 전무하며 그들의 재학증명서는 본인의 허락없이 미국의 법으로 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1992. 10-11월간 진행.

55) 그의 경력중 Institute of Design in Chicago, MIT에서 역임. 1954-1970년 동안 미네소타 건축대학 학장역임.

비록 실무의 분야에서까지 완전히 수용된 것은 아니었으나, 국제주의 양식이 그 영향력을 넓혀 가던 시절이었다. 이즈음 건축교육계는 하바드에서 그로피우스로부터 건축설계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배출되는 젊고 의욕적인 교수들과 미스의 절대적 가르침에 영향받은 과들, 또한 그 수에 있어서는 소수였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자연주의적 가르침에 경도된 일파의 영향이 혼재된 상황이었다. 그 시기, 라이트식의 자유로운 정신을 지향하는 교수계열과 엄격한 미스식 훈련을 존중하는 교수계열의 논쟁이 빈번하였으며, 그 결과는 흔히 미스안의 승리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스와 그로피우스, 르 꼬르뷔제, 호세 루이 서트(Jose Luis Sert)의 가르침 아래 국제주의의 정신에 영향받고 매료되어 있던 랩슨이 미네소타대에 부임하여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건축대학은 새로운 정신에 고무되었으며 이는 건축계에 퍼져나갔다. 교수진의 다수가 실무건축가였던 관계로 기성 건축계에 건축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며 미네소타대는 약간 앞서 이 방향을 주도해 나갔다고 보여진다. 특히 랩슨은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높은 예술적 기준을 요구하며 정열적으로 도면과 제도 기술(draftsmanship)을 발전시켰다.⁵⁶⁾

당시 미네소타대 건축과를 다녀 온 김희춘의 회고에 의하면⁵⁷⁾ 「저는 서양건축사를 주로 공부했지요. 미네소타는 과장이었던 랩슨교수에 의해 모던디자인에 대한 강력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시작은 1938년부터였다고 합니다. 랩슨교수는 Contemporary Design에 대한 강력한 시도자였어요. 보수적인 풍토에서 새로 시작한 것이지요…… 저는 강의도 듣고 3학년 학생들을 설계지도도 하였지요.」

김희춘의 귀국 후 교과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전까지의 건축사강좌가 양식이라는 명칭으

로 개설되다가 서양건축사와 현대건축으로 바뀌어 새로운 강좌가 마련된 점이다. 1957년 4학년 과목에 1, 2학기 1학점씩의 현대건축이라는 과목이 나타난다. 57년 당시 3학년 과목에 양식이 있으나, 58년 1, 2학기 2학점씩의 건축사라는 과목이 신설되면서 양식의 과목이 폐지된다. 이는 1962년 이후 2학년의 1.2학기 1학점씩의 서양건축사 과목으로 대체된다.⁵⁸⁾

3. USOM에 의한 프로그램

USOM의 원조계획에 의해 윤장섭, 안영배, 이정덕 등이 다녀오게 된다. 윤장섭의 경우 우남회관 신축설계 때 구조계획과 설계에 참여하면서 당시 우남회관 자문을 하던 박관두 선생의 추천으로 USOM의 미국 파견교육 기술자로 선발되어 MIT 대학원 건축학과에 유학하게 된다. 당시 MIT 건축과는 학부가 5년 과정이어서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미네소타 프로젝트 고문으로 서울 공대에 파견된 윌리엄 웨즈(W. Weems) 교수의 추천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⁵⁹⁾ 윤장섭과 가진 인터뷰에 의하면 귀국 후 미국에서 받은 영향을 바로 교과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기존의 교과과정으로 인해 여의치 않았으나 1965년 동양건축사를 처음 개설하고 2, 3학년 건축계획 및 건축음향계획과 설계와 같은 강좌를 통해 유학의 경험을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유학을 통한 한국고건축에 대한 자각은 그의 한국건축사 연구로 나타나지만 한국건축사가 개설되는 것은 1971년에서야 가능해진다. 1958년-1959년 MIT의 건축학과 커리큘럼의 일부는 다음 <표 5.1> (p. 107) 과 같다.

종합적으로 보면 1954년에서 1960년경까지 미국 여러 원조단체들의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대학연수 및 산업시찰, 설계사무소연수 등을 통해, 미국의 건축상과 건축교육의 현실에 접한 이들이 귀국해서 주로 교육계와 실무의 분야

56) SALA History, P. 20, School of Architecture, Univ. of Minnesota, 미간행, 자료제공: 장기윤

57) 우극 김희춘교수 고회기념 논문집, 1985, P. 81

58) 당시 교육 내용은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1956-1965 학적부 참조할 것.

59) 소우수록, P. 14.

〈표 5.1〉 MIT 건축학과 교과과정

ROOM	NO.	S U B J E C T	Instructor	Hours
3-307	4. 00	Structure of the City	Hudnut	MF 9-10
5-403	4. 02	Form & Design	Filipowski	MWF 2-5
5-411	4. 032	Visual Design	Preusser	TTH 2-5
7-404	4. 06	Adv. Visual Design	Kepes	TTH 9-1
5-406	4. 11	2nd Year Design	Brown	MWF 2-5
7-304	4. 132	3rd Year Design	Goody	MWF 2-5
7-438	4. 142	4th Year Design	Anderson	MWTHF 2-5
7-404	4. 162	Graduate Design	Catalano	TWTHF 2-5
7-305	4. 32	Structural Analysis	Gelotte	TTH 1-5
3-307	4. 34	Structural Seminar	Weidlinger	M 2-4
7-106	4. 42	Architectural Acoustics	Newman	M 4-6
3-133	4. 66	Modern Art and Architecture	Bush-Brown	TTH 9-10 3rd hr. to be scheduled
5-217	4. 68T	Architectural Criticism	Bush-Brown	W 11-1
5-411	D121	Graphics Lab. (Freshman)	Preusser	W 2-5
52-27LD	14. 20	Building Economics	Abrams	F 3-5
5-345		Thesis	Beckwith	WTH 2-5

자료 : 1958년 MIT 건축과 교과과정, 제공 : 윤장섭 교수

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앞선 건축교육 경험과 건축기술을 받아들여 소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강렬했던 만큼 한계도 지닌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교육에서는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5-4. 대학설치 기준령의 제정

1955년 8월 4일 대통령 제 1063호로 공포된 대학설치기준령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는 정책지표의 설정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50년대 초반의 대학설립붐으로 말미암아 대학의 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대학을 설치하는데에 시설과 교원등에 관한 소정의 기준에 도달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동기기준령은 대학시설의 기준뿐만 아니라 교수와 조교 등의 기준도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토록 하였다. 이것은 신설 대학의 역제는 물론, 50년대 후반기에 일부대학의 정비를 위한 근거가 되었으나 충분히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시행과정에서 그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 후반기에는 대학의 신설이 현저하게 줄고 일부대학, 일부학과의 정비가 단행하였다.⁶⁰⁾ 대학설치기준령의 제정과 그 시행은 대학의 내실화를 향한 정책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고등교육에서 인사 행정제도 정비, 소규모 대학정비 단행, 해외기관과 인적 교류 추진, 교과과정 개편 등이 단행되었다. 특히 외국유학이 늘어나서 학생과 교수들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진다. 대학설치기준령이 제정된 1955년부터 1960년 4.19 학생혁명에 이르는 시기는 사회환경이 다른 때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때였으며 고등교육도 성장보다는 안정을, 변혁보다는 보수를 지향했던 시기이었다고 할 수 있다.

60)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P. 237

〈표 5.2〉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과과정 1954-1955년

과목명				必須/選擇	과목명				必須/選擇
철	골	구	조	必	건	축	의	장	必
구	조	역	학	必	기	계	공	학	必
건	축	구	조	必	전	기	공	학	必
건	축	계	획	必	축	량	학	必	
건	축	양	식	必	자	재	화	必	
철	근	콘	크리	必	진	축	설	必	
건	축	재	료	必	음	향	학	選	
건	축	설	비	必	색	채	학	選	
건	축	시	공	必	정	원	학	選	
건	축	법	규	必	건	축	지	選	
도	시	계	획	必	조		소	選	
도		법	법	必	특	수	구	選	
					특	수	재	選	
							료	選	

자료 : 서울대학교 1955년 교과 과정

또한 1959년에는 몇몇 대학들이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다.⁶¹⁾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미국의 대학제도를 모델로 하면서도 현실의 여건하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대체로 4년제 대학의 경우, 180학점 체제로 시작되어 1945-54년까지 시행되었다. 일제하에서는 교양과정을 경시하였으나 해방이후 전공 이외의 교양과정을 도입, 비중있게 시행하였다. 예컨대, 서울대는 교양 55, 전공 85, 선택 55의 학점 배정기준을 이루었다. 180학점 기준은 1954년 2월, 교과과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양과목의 필수와 선택, 전공과목의 주전공과 부전공, 학점규정 등 교육내용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여 1955년부터는 160학점이 시행된다. 160학점 기준은 1973년 일부 실험대학에서 140학점 기준이 적용될 때까지 존속되었고 일부대학에서는 1981년 140학점 기준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그리고 교양, 전공, 선택의 3분 구조도 160학점 기준이 존속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후 1981년부

터 140학점 기준이 적용되면서 교양과 전공의 2분 구조 속에서 각각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는 4분 구조로 전환되었다.

위의 〈표 5.2〉는 1954년- 1955년의 160학점으로 개정된 첫 해의 교과내용을 보여준다. 새롭게 눈에 띄는 과목은 기계공학, 전기공학과 같은 공학 일반에 관한 강좌가 필수로 개설된 것이며 선택과목의 폭이 색채학, 정원학, 건축지질, 조소, 특수구조, 특수재료 등으로 다양해진 것을 들 수 있다. 이 과목들을 학생들의 학적부에서 확인해보면 특수구조, 특수재료의 선택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조명공학이라는 2학점의 과목이 1958년까지 거의 빠짐없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나다가 이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전공의 교과과정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가변성있게 개설되었던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6. 結論

위에서 해방 이후 미군정과 건국기, 전시기, 전후회복기 등을 거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건축교육이 시작되는 과정을 서울대학교의 예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전반적인 교육

61) 위의 책, P. 242, 건국대학, 동양대학, 한양공대 등이 종합대학교로 승격됨.

의 기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대학에서 건축교육이 시작되었으며 향후 건축교육의 외형적인 틀을 골격짓게 되는 시기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그 틀을 결정짓는 요소로써 문교정책과 해방 전후의 여러가지 복잡한 시대상황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제시기의 기술위주의 왜곡된 건축교육에서 벗어나서 대학에서 교양교육과 병행하여 건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군정기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단선형 6-3-3-4 학제를 택하게 되면서 대학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을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과대학 내에 건축학과가 설립되는 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라기보다 교육개혁을 통하여 미국의 학제를 채택하면서 파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교육의 알맹이를 메꿔야 했던 것은 일제시기동안 교육을 배웠거나 일본유학을 통해 경험을 쌓은 이들이 대중을 이룰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일제하의 교육적 영향을 벗어나거나 그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그러한 공학적 기술위주의 방향성이 해방 이후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였을지 모르나 건축의 본질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출발이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건축교육의 경우, 자유방임적인 문교정책의 기초아래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1961년까지 11개 대학에 건축학과가 생겨나 교육의 기회가 많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는 충분한 준비나 교육의 질을 고려할 틈도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양적 증가만을 의미할 뿐이었다. 서울대학교와 한양공과대학의 경우 그 학제와 교과내용이 이후 신설되는 건축학과들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각 대학의 초기교육을 담당한 교수를 중심으로 볼 때 11개 대학 중 7개 대학(서울대, 한양대, 영남대, 부산대, 동아대, 연세대, 인하대 등)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교원이 시작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홍익대학의 경우는 미술대학에서 건축교육을 시작하여 건축의 미술의 한 갈래로 이해하고 가르치고자 한 점이 돋보이며 이 방향성이 향후 홍익대 건축학과와 디자인 위주의 교육을 방향지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군정으로 시작된 교육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6.25 이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여러 기술 및 교육원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질적 교육내용의 면에서 미국 건축교육의 방식과 체제 등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원조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반면, 학문의 경향상 지금까지 미국편향을 벗어나지 못한 계기가 된다. 서울대가 상대적으로 그 수혜의 폭이 타대학에 비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건축과의 경우, 이 시기를 통한 미국식 설계경험과 학문적 연구 경험이 일제때 있었던 기술편향의 구조위주 교육방향에 다양성을 불어넣는 동시에 건축교육의 질에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으니 이것은 건축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의 평가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즉 국가차원에서 원조들이 행해졌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너무 낙후되어 교육 면에서 그 원조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일방적인 수용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기간이 대부분 너무 짧았던 관계로 미국에서의 교육의 경험은 충격적이었던 만큼 부분적으로는 단편적이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시기의 경험이 향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그 경험의 한계로 인한 파급효과도 큰 파장을 남긴다고 보여진다. 이 외에도 교육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영향은 실증주의적이고 도구주의적인 교육이념, 학교운영, 학사행정, 교과과정 등에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는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도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신생국가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생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학회지

-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 40년사, 1945-1985, 서울, 1985
- 대한건축학회, 건축, Vol. 1 No. 1, 5506 - Vol. 10 No.23, 6612, 건축창간호-1966. 12
- 대한건축학회, 건축, Vol. 19 No. 65, 7508, 대한건축학회 30년 연혁
- 대한건축학회, 건축, Vol. 29 No.126, 8509, 건축학회 40년을 회고하면서 단행본
- 강만길 外, 해방전후사의 인식 II, 오늘의 사상신서 93, 한길사, 1985
- 최창집 外, 해방전후사의 인식 IV, 오늘의 사상신서 128, 한길사, 1990
- 김희춘, 우곡 김희춘교수 교회 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세종문화사, 1985
- 동아일보사,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I-V 동아일보사, 1990
- 무에연구소, 무에 이광노교수 건축작품집(회갑기념, 1949-1987), 서울대 건축학과, 1988
- 오천석, 한국신교육사(상.하), 오천석 교육사상 문집 광명출판사, 1964
- 윤장섭, 소우수록, 소우수록 편찬 위원회, 1990. 3
- 한준상, 한국대학교육의 희생-대학교육한계와 교육사회학의 이해, 문음사, 1983, 서울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 김육성, 1945년부터 1955년까지 한국건축계 형성기 성격에 관하여, 명지대 석사논문, 1990
- 김종철, 한국의 교육제도와 문교행정에 끼친 미국문화의 영향, 아세아연구, 67. 6
- 류전희, 근대 건축교육학제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3
- 채원형, Curricular Reform in Korea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UMI 1986. 6,
- 홍승희, 1950년대 미국의 對韓教育使節團 연구,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논문, 1991. 8
- 현창근, 서울대학교 개발계획과 미국의 원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62. 11
- 문교부 자료, 학교편람류
- 문교부, 문교개관, 4291년(1958)
- 문교부, 한국교육 30년, 한국교육 三十年편찬위원회, 1980
- 문교부, 문교40년사 편찬위원회, 문교 40년사, 문교부, 1988. 5
- 문교부, 문교월보, 4286년(1953), 8월호, 제 6호
- 문교부, 문교월보, 1958년 9월호, 제 41호
- 국민대학, 국민대학 30년사,
- 단국대학교 교사 편찬위원회, 단국대학교 30년사, 1947-77,
- 명지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 30년사, 1948-78, 1978
- 서울대학교 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20년사 1946-66, 1966
- 서울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30년사 1946-76, 1976
-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86, 1986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 서울대학교 출판사, 1987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학적부의 일부, 1946-1974
- 서울대학교, 학사편람, 1955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연세 건축 삼십년사(1958-88), 1988. 11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1988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30년사 1952-82, 1982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8
충북대학교 30년사 편찬위, 충북대학교 30년사 1951-81, 1981. 9,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30년사 1952-82, 1982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50년사, 1989
한국과학기술원 & USOM, A General Survey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1967, General
Report Administration, Finance & Facilities, 196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1989. 11
Bronfenbrenner, Martin, Academic Encounter The American University in Japan & Korea,
The Free Press of Glencoe, Michigan, 1961
United States of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fficial Gazette, Vol. 1-4, 미군정청
관보, 원주문화사 영인본, 1989
United States of Army Forces in Korea, G2 Weekly Summary, Summation of US
Non-Military Activities in Korea, 원주문화사 영인본, 1990. 2

A Study on the Formation & Characteristics of Collegiate Education of Architecture in Korea from 1945 to 1961

Ryu, Jeon Hee

(Lecturer, Kyo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Ulsan Universti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a history and its external conditions of collegiate education of architecture in Korea from 1945 to 1961. To reveal the process of formation of architectural education of this period, my analysis is chiefly concerned with the organization and of its curriculum in terms of policies of Ministry of Education, especially focused in case of Dept. of Architectur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I attempted to describe th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the structural conditions and results within and without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more gener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that pertained during those years, 8.15 Emancipation, Korean War, and Post-war Rehabilitation period. We may summarize them in part by saying the reception in Korea of the American influence was done through educational ideas, policies, systems, and various aid programs. The social *raison d'être*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Korea has been to produce technologically skilled man in the sense of engineer.